

영상디자인(콘텐츠) 기획서 (초안)

과정명 :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한 반응형 웹콘텐츠(영상제작&코딩) 개발기획자 양성

작성자 : 이 민 재

제목	다시 쓰는 이야기, Glasstory
기획 의도	<p>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: '버려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선'을 제시하고, 누구나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'다시 쓰는 이야기'라는 제목으로 버려진 공병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강조하여,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울림을 선사합니다.</p> <p>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?: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, 넓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. 'Glasstory'라는 부제는 영상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며,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.</p>

타겟 (대상 시청자)	<p>주요 시청자 연령대: 10대 후반 ~ 40대</p> <p>관심사 / 특성: DIY(Do It Yourself)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.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거나, 특별한 취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.</p>
----------------	--

형식/길이	<p>영상 형식: 감성적인 BGM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담아낸 숏폼(Short-form) 콘텐츠</p> <p>영상 길이: 15초</p>
-------	---

<p>콘텐츠 내용 요약</p>	<p>3단계로 간단하게 작성합니다.</p> <p>○버려진 유리병 클로즈업: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놓인 텅 빈 유리병을 감각적인 앵글로 보여줍니다. (3초)</p> <p>○그림을 그리는 과정: 붓이 유리병 표면 위를 지나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클로즈업과 타임랩스로 보여줍니다. 빛이 반사되는 효과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(8초)</p> <p>○완성된 작품과 메시지 전달: 그림이 완성된 병이 창가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며, "버려지는 것은 없다,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뿐"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자막과 함께 전달합니다. (4초)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

<p>예상효과</p>	<p>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점: 환경보호 활동이 예술 활동처럼 아름답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</p> <p>기대되는 변화(참여, 공감, 행동 등): 영상에 대한 '좋아요'와 공유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더 나아가 자신만의 유리병 아트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등 'Glasstory챌린지'로 이어져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</p>
-------------	---